

NEWS LETTER

2019년 4월 1일 Vol. 338

폐렴 적정성 평가 최우수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폐렴 제3차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9.5점으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렴 적정성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4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 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 도말검사 처방률 ▲객담 배양검사 처방률 ▲항생제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금연교육 실시율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 등 총 8개 지표에 대한 결과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 지표에서 8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입원일수가 평균보다 짧았고, 입원 30일 내 사망률은 0%를 달성해,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인 79.1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덕양구보건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학협력단 스마트헬스케어 센터장 오상우 교수는 지난 3월 26일,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덕양구보건소와 지역 사회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고령 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대처를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관할 보건소와 상호협력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에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덕양구 보건소에서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활 관리 및 영양, 운동, 복약 설명, 수면 활동은 물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낙상 관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상우 센터장은 “지역병원으로써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연구에 매진할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 CS 우수부서 시상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20일 내·외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 CS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했다.

2019년도 CS 우수부서는 총 3곳으로 진료부에서 신경외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됐으며, 간호부 91병동, 행정처에서는 의무기록팀이 가장 높은 점수로 선정됐다.

평가항목으로는 환자경험평가 점수, MOT모니터링 점수, 친절추천 건수, 진료개시 시간 준수율, 캠페인 참여율 등을 점수화하여 직종별로 우수부서를 선발했다. 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서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현금을 수여했으며, 부서 입구에 CS 우수부서 상패를 1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재능기부봉사단 ‘사랑재’, 암 환자를 위한 무료 가발 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22일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발 무료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암 환자들이 투병생활 중 외모 변화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총 5명의 환자들이 가발을 전달받았다. 특히, 환자 개개인 특성에 맞는 특별 가발 제작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가발을 원하는 스타일로 직접 선택하고 착용할 수 있어 암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재능기부봉사단 사랑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본원 암 환자를 위해 가발 나눔 봉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가발을 원하는 환자는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